

서 문

에리히 프롬과 현대성

지난 2000년(3월 23일)은 에리히 프롬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1980년에 사망한 사회철학자이자 정신분석가이며 휴머니스트였던 프롬에게 충분히 경의를 표할 만하다. 그의 대표작 《자유로부터의 도피》(1941), 《사랑의 기술》(1956), 《소유냐 존재냐》(1976) 등은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아직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밖에도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에 대한 그의 영향력, 권위적인 성격, 말년의 ‘마케팅’ 성격, 죽음애호증¹⁾의 개념, 20세기 휴머니즘에서의 중심적 위치 등도 에리히 프롬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요소들이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여러 특정 분야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

1) 죽음애호증Necrophilia : 프로이트의 에로스/타나토스 개념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생명애호증Biophilia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프롬은 현대사회에서 죽음애호증이 지배적인 추세라 단언했다. 특히 프롬은 강한 성적 색채를 띤, 죽음과 파괴에 사로잡힌 것 모두를 포괄적으로 죽음애호증이라 정의했다. ‘Necros’는 죽은 생명체, 비생명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프롬의 인식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앞서 휴머니스트이자 사회비평가인 프롬이 지니고 있었던 일반적인 통찰의 윤곽을 스케치해 보고자 한다.

새로운 구성원리로서의 마케팅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의 역사에서 지금까지도 마케팅이 모든 생활영역을 지배하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진 적은 없었다. 단순히 '시장에 내다판다'는 의미였던 마케팅은 이제 하나의 경제철학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마케팅은 곧 삶을 의미하게 되었고, 모든 것이 '시장성' 여부에 따라 그 가치가 판단된다. 정치는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이미지 창출에 거의 전적으로 매달리고 있고, 종교는 내세를 보장해 줄 때만 진리로서 인정을 받는다. 문화도 얼마나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가 하는 상품성이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었다. 심지어 한 사람의 인격도 일차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풍기는 것)을 통해 평가되고 있다. 인류가 겪는 고난과 궁핍, 부족 등도 상품가치가 있을 때만 사람들의 주의를 끌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사회복지활동마저도 고객 끌기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마케팅'은 현대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마법의 주문'이 되고 말았다.

50년 전까지만 해도 상황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다. 당시의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삶을 지배하던 마법의 주문은 '권력'—자본·지식·신분·계급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이었다. 프롬은 1930년대에 이미 '권력지향성'이란 심리적 개념을 가지고 삶의 전 영역



을 지배하고 조직하는 권력 욕구를 설명했다. 소위 68혁명²⁾을 통해 표출된 것이 바로 이러한 권력지향성에 대한 저항이었다. 이 사건은 그 이후 마케팅 지향성이 사회의 지배적 현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마케팅 지향성이란 개념은—프롬은 이 개념을 이미 1940년대에 발전시켰다—시대적 현상을 잘 반영해 주는 상징이다. 타협주의, 유연성, 이동성, 성취욕, 개별화, 이기주의, 감상주의, 무관심 등은 마케팅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조건들을 표현하는 단어이다. 이 조건들은 마케팅이 삶의 가장 중요한 구조적 원리가 되어버린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핵심적 가치로 자리잡았다.

마케팅 지향성은 심리학적으로 볼 때 실제적 능력·독자성·필요·감정·생각 등과 같은 고유한 존재성이 아니라, 구매력·상품성 등과 같은 외적 요인과 연관된다.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유한 존재에 담긴 실제적 내용이 아니라 전시나 포장이다. 실제로 갖고 있는 것보다 꾸미고 암시를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성공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마케팅 지향성은 인간 존재 및 실질적 자아체험의 가치를 점점 떨어뜨리고 있다.

인간들은 이러한 자기존재 및 자아체험의 결핍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상하려 한다. 에리히 프롬은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보상행위들을 보여줌으로써 사회로 하여금 자신들의 행위와 지향점을 재인식하도록 거울을 들이대고 있다.

2) 68혁명 : 1968년 5월 프랑스 학생운동에서 시작된 전 지구적 반체제운동을 일컫는다. 기존 권력의 전복과 새로운 권력의 획득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변혁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존재가 아니라 소유

그러나 현대인들이 마케팅 지향성에 따르기 마련인 자기존재의 결핍을 보상하기 위하여 추구하는 것은 존재가 아니라 소유이다. 현대에도 여전히 그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프롬의 두 번째 인식은 바로 이런 소유지향성에 관한 것이다.

1976년 《소유냐 존재냐》가 발간된 직후 사람들은 프롬이 소유와 존재의 양자택일적 문제 제기를 통해 무소유 또는 비소유를 주장한 것으로 잘못 이해했다. 그러나 이 양자택일에 담긴 본래 의미는 마케팅 지향성의 강화로 인한 현대인의 존재상실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비로소 분명해졌다. 자아상실은 현대인의 내적 공허감이나 설새없이 무언가를 소유해야만 하는 욕구 등에서 잘 나타난다.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권태, 내적인 무기력, 외부자극이 있을 때만 움직이는 이른바 자가 추진력의 상실과 그에 따른 의기소침 등이 그런 현상에 속한다. 또 자기 자신과 홀로 대면하는 것을 몹시 꺼려하는 현대인의 두려움도 마찬가지로 존재상실의 결과라 하겠다.

어떤 형태로 표출되든지 간에 존재의 결핍은 창조능력의 부재를 의미한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소유함으로써 이런 결핍을 보상하고자 한다. 그렇다고 해서 소유지향성이 물질적 재화를 통해 비물질적 재화의 결핍을 보상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현대에서의 소유는 창의력, 건강, 활동력, 생명력, 자발성, 개발능력 등과 같은 비물질적 재화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소유지향성이란 가치, 신념, 지식, 명망, 부, 진리, 미美 등의 소유를 통해 존재를 보상하거나 대체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가 가진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 즉 안에서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생산)이 아니라 밖의 것을 안으로 집어넣어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에 있다. 이때의 자기 것이란 자기존재의 실현을 통해서가 아니라 밖의 것을 자기 안으로 집어넣음으로써 발생하기 때문에 소유를 추구하는 것이 존재를 추구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존재하고자 하는 욕구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이다.

연출된 현실에 대한 선호

프롬의 세 번째 인식은 소유 지향을 통한 존재의 보상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소유 욕구는 상품, 관계, 가치 등에 머무르지 않고 또 다른 현실을 체험하고자 한다. 이때 사람들은 주어진 현실을 지각하고 그런 현실을 일구어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을 연출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연출된 현실을 오히려 더 선호하기조차 한다.

마케팅 지향성의 심화로 인한 존재의 상실은 자아기능의 약화를 초래했다. 자아의 주요 기능은 현실을 제어하거나, 또는 자신의 욕구·희망·상황 등을 외부의 상황과 요구에 맞추는 일이다. 외부세계에서 주어진 것은 우리의 육체적·심리적·정신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도 하지만, 또한 그것들을 위협하고 방해하기도 한다. 이렇게 불안정한 현실체험을 효과적으로 견뎌내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유한 존재를 통해 좀더 자립적으로 삶을 꾸려나가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자신의 고유한 능력으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사람은



더욱 안정된 자아를 체험하고(강한 자아), 더욱 현실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며(현실감각), 패배를 더 쉽게 견뎌내며(위기극복), 인생의 덧없음을 더 잘 인내(참을성)한다.

존재의 약화는 앞서 언급한 자아기능의 약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존재의 결핍을 보상하려는 시도는 주로 약화된 자아기능을 보상하는 데 집중된다. 이때의 해법은 현실의 불안정한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현실을 만들어 내고 구성하고 연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이란 것은 원래 이런 자아기능(강한 자아, 현실감각, 위기극복, 참을성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관찰할 것인가, 아니면 구성하고 연출할 것인가를 놓고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는 언제나 존재해 왔다.(절대주의 시대의 종교가 흔히 연출했던 가공적 현실의 무대를 한번 떠올려 보라.)

현실을 인내와 좌절을 통해 힘들게 받아들이는 대신 직접 연출하는 현상은 기술과 산업의 발전, 특히 전자 미디어 테크놀로지와 오락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커다란 매력을 띠게 되었다. ‘오락사회, 체험사회, 정보사회’ 등 오늘날 흔히 사용되는 사회개념들은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현실 연출을 기반으로 한다. 인위적으로 꾸며진 체험 세계들은 자연적 체험이나 직접적 접촉을 통한 것보다 더 자극적이고 흥미진진하다. 중계되는 사건이 직접 경험하는 것보다 더 믿을 만하게 여겨지고, 자기 집 안방에서보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가상 세계 안에서 사람들은 더 안락함을 느낀다. 마약이나 환각물질 등에 탐닉하게 되는 이유도 자기 스스로 만들어 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마음에 들기 때문이다. ‘사이버 세계’의 인기는 스스로 만들어 낸 현실이 실제 현실보다 더 사실적이고 마음에 든다는 데 기인한다.



자아가 약화된 인간이 '사이비 현실'을 만들어 내어 부족함을 보상한다는 프롬의 인식은 초기작 《자유로부터의 도피》(1941)에 이미 나타나 있다. 당시에 그는 이런 현상을 최면실험을 통해 기술하면서 사이비 사고, 사이비 감정, 사이비 욕구, 사이비 행위 등에 관해 언급했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오늘날 더욱 극단화시켜 볼 수 있다. 광고나 미디어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는 현실은 우리를 집단최면 상태로 몰고 간다. 이러한 상태가 진행된다면 우리는 다수의 생각과 감정이 집단최면의 결과인지 아니면 실제적인 현실인식의 결과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제기하는 진리 문제나 현실탐구는 기만적이거나, 아니면 철 지난 유행을 붙드는 것에 불과하다. 프롬은 1970년대에 이미 사이버네틱 인간을 언급했으며, 이런 인공인간의 기능과 정신분열 과정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있었다.

나르시스적 집단 과대망상과 약자 박해

프롬의 네 번째 인식은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자기에自己愛, 즉 나르시스즘과 관련되어 있다. 사람들은 특히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집단적으로 발현되는 나르시스적 과대망상을 통해 자신의 열등감을 보상받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나르시스적 집단 과대망상은 이미 1960년대 초반에 발견된 것이지만, 그 의미가 제대로 드러난 것은 내면적 공허·우울·권태·허무 등의 감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오늘날에 와서이다. 조금 덜 절망적이고 덜 고통스러운 현실을 연출해 내어 존재



와 고유능력의 결핍을 감추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할 때, 사람들은 거창한 자아를 상상함으로써 빈약한 자아를 보완하고자 노력한다. 그렇게 되면 현실을 낙원으로 치장하고자 애쓸 필요도 없이 스스로 만들어 낸 멋진 자아를 통해 열등한 자아에 대한 고통스러운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자아에 대한 나르시스적 도취를 통해 열등한 현실을 보상받고자 하는 이런 시도는 자신을 없어서는 안 될 멋지고 위대하며 완벽한 승리자로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자신이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보다 못한 타자他者가 필요하다. 그리고는 자신이 결코 가져서는 안 되는 무능력, 부족, 오점, 비열함, 불완전 등을 모두 그에게 투영시켜 버린다. 나르시스적 인간은 자신의 부족함을 간단히 자기 존재에서 잘라내어 주변에 떠넘기고는 그 상태에서 이러한 부족함들과 대결한다. 이렇게 상반된 자아로 갈라지게 되는 것은 대체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그 하나는 자신의 위대함에 대한 주변의 비판이나 의심을 모면하기 위해 자신의 둘레에 보이지 않는 견고한 담을 쌓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악마로 만들어 자신의 '오물'을 모두 그에게 던져버리고 자신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이다.

나르시스적 보상행위에서 타자와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타자가 자신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복돋워 주고, 반영해 주고, 보완해 줄 때뿐이다. 이런 타자는 자신의 팬클럽 회원이나 수하手下들로서 자신의 위대성을 드러내 주는 거울 정도로 받아들여진다. 타자들이 이와 같은 기능에 충실하며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동안은 나르시스적 인간과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며 그 광채의 일부를 얻는다. 하지만 비판적이 되고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



하게 되는 순간 양자의 관계는 끝나고 만다.

프롬은 이와 같은 나르시스적 역학관계를 《인간의 마음》(1964)에서 사회적 차원에 적용시켰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는 국수적이고 인종차별적인 과격한 행위들의 동기를 탐구하여 냉전과 철의 장막의 종식이 유럽에 새로운 형태의 외국인 혐오로 이어지게 된 원인들을 추적했다.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나 가족관계와 같은 미시적 사회영역에서 벌어지는 자아에 대한 나르시스적 과대망상과 타인에 대한 폄하, 배척 등의 원인도 밝혀낼 수 있었다. 부부 둘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흔히 사악한 세상에 대한 공격적 태도의 다른 모습인 경우가 많으며, 가족 안에서의 화목은 자기 가족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폄하 위에 건설된다. 마찬가지로 환경단체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환경과괴범으로서의 거대기업의 존재가 필수적이며, 또 정치적·경제적 성공을 위해서는 자신의 결점을 가려줄 약자가 존재해야만 한다.

프롬의 사유가 갖는 현대성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특히 집단적 형태로 나타나는 이와 같은 나르시스즘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런 나르시스즘은 대개 마케팅의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사회적 시스템에 의해 처음부터 패배자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나타난다. 그들은 장애인이거나 고질병 환자, 정신질환자, 약물중독자, 장기 실업자들로써 사회·경제적 핍박을 통해 성공한 사람들의 시야에서 추방된다.

생명 없는 물건에 대한 열광

1960년대에 프롬은 마케팅 지향성 이외에도 당시 사회에서 점차 모



숨을 드러내기 시작한 근본적인 경향을 포착했다. 그것은 오늘날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는 생명 없는 물건에 대한 열광이다. 그리고 이런 열광에는 자기존재와 자아체험의 결핍현상이 동반된다. 존재의식과 고유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내면적으로 생명력을 느끼지 못하며 단지 외부자극에 따라 반응하게 된다. 이런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혼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어떤 사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다. 이들은 비생명체나 또는 그런 상태에 빠진 모든 것들에 대해 호감을 갖는 것이다.

프롬은 《인간의 마음》(1964)과 《인간 파괴성에 대한 해부》(1973) 등을 통하여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죽음에 호증 확산 경향에 대한 생각을 발표하기에 앞서 오랫동안 망설였다. 죽음에 호증 확산 경향은 생명이 없거나 죽은 것이 살아 있는 것보다 항상 더 매력적이라는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특히 분리주의자나 극우파, 테러리스트, 폭력적인 원리주의자, 홀리건, 광적인 임신중절 반대론자 들처럼 개별 집단에서 무절제한 폭력성을 띠고 나타난다. 이들 집단에게 파괴는 이제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다. 그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다. 즉, 순전히 폭력에 대한 열광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무절제한 폭력성(극우파, 홀리건, 악마숭배, 학교 총격사건, 또는 ‘그냥 저질러 보는 범죄 행위’)은 생명을 사랑하는 능력의 결핍에 대한 보상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런 능력 결핍은 대개 스스로의 책임만은 아니며, 거기서 생겨나는 폭력성 안에는 ‘나에게 사랑하거나 활력을 제공할 능력이 없다면 적어도 폭력을 통해서라도 나 자신을 느껴보고 싶다’는 동기가 작용하고 있다.

죽음에 호증이 이렇듯 존재와 활기찬 자아능력의 결핍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현대의 지배적인 현상인 마케팅 지향성과 결부시켜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죽음애호증에 의한 폭력성은 더 깊은 뿌리를 갖고 있다. 그것은 이미 수세기 전부터 발전되어온 가산성可算性의 매력과 관계가 있다. 계산 가능한 것은 오직 사물뿐이다. 때문에 살아 있고 변화하는 것은 계산을 위해 사물화된다. 생명이 없는, 계산 가능한 것을 생명이 있는 것보다 더 매력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오늘날 지극히 일반적인 현상에 속한다. 그것은 '시대정신'과 일치하며 '건강한 이성'의 행위로 간주되기조차 한다.

생명이 없는 사물에 대한 죽음애호증적인 열광은 신나치주의자나 분리주의자들의 무절제한 폭력 못지않게 삶과 문화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애호증 현상에 담긴 심리적 역동성에 대한 프롬의 통찰은 오늘날 널리 퍼져 있는 이 현상을 이해하고 그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프롬의 현대성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접근하려면 그가 제시하는 대안은 무엇이며, 그의 대안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해서 질문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프롬의 현대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삶의 기술에 대한 그의 이해가 검토되어야 한다.

삶의 기술에 대한 지식

프롬은 사회발전 방향의 문제점을 인식한 뒤에는 항상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해결전략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렇다고 그가 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전이나 행동지침 같은 것을 내놓았다는 말은



아니다. 그의 해결전략은 인간 욕망의 성향과 목표, 그리고 주도적 가치에 개입하여 구체적인 행동규범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행동이 소유에 맞추어져 있다면 프롬은 그에 대한 대안적 해결전략으로 존재와 고유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방식을 제시한다. 가상현실이나 과대망상으로의 도피를 통해 실패를 견뎌내는 능력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프롬은 그러한 능력을 기르도록 하되 그것을 통해 절망을 인내하는 자신의 고유한 힘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구체적인 행동반응까지 제시한다. 프롬이 여기서 옹호하고 있는 것은 체념의 미덕이 아니라 자아 체험의 강화이다. 또 다른 예로, 만약 어떤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프롬은 그가 자신의 행동을 통해 스스로의 자율성을 상실케 되지 않도록 불복종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때의 불복종 요구는 소요나 폭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능력이 발휘되기 위한 자립성 확보를 말하는 것이다.

프롬은 이런 종류의 해결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프롬은 그와 대립했던 사회조사연구소의 대부분 프랑크푸르트학과 학자들과 구분된다. 그들은 이상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본 프롬의 생각을 비판했다. 그러나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지식 및 그런 대안을 납득할 만한 것으로 만들어 내는 능력이 바로 프롬의 사유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이다.

하지만 프롬의 현대성에 대해서 언급해야 하는 더 깊은 이유가 있다. 프롬은 평생 동안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삼아 분석했다. 즉,

자신의 자아체험을 심리적 억압이나 투영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존재를 확장시키고 강화시켜 나갔다. 프롬이 자아체험의 소외 혹은 결핍에 관한 인식을 말할 때, 그것은 ‘바깥’ 사회에 대한 분석 결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 프롬은 자신을 사회의 하나의 표현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사회의 변화는 언제나 자기 내부에서 느껴지는 자기 존재조건의 변화와 더불어 시작된다고 했다. 이와 같은 프롬의 접근방식은 존재조건의 변화를 단지 자신들의 인식대상으로만 삼을 뿐인 다른 학자나 사회비평가들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이들은 자신들의 탐구방법에서 주관적 요소와 조건들을 배제함으로써만 인식의 학문적 객관성이 획득된다고 믿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프롬의 연구는 학문에 대한 오늘날의 일반적 이해에서 크게 벗어난다. 그는 오히려 문학이나 예술가에 가깝다. 이들은 예술적 행위를 통해 자신들이 사회에서 겪는 내면적 고통을 인식하고 창조적으로 표현해 낸다. 프롬이 제시하는 해결전략도 이와 동일하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부족함을 스스로 느끼고 또 그것을 고통스럽게 받아들인 후에, 인간이면 누구나 내부에 지니고 있는 능력을 활성화시켜 창조적으로—프롬의 말을 빌리면 ‘생산적으로’—반응토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런 ‘해결전략’ 또는 ‘생산적’ 모델에는 예술을 모범으로 하여 인간의 정신적·심리적·육체적 능력과 가능성을 실현시키고 강화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자신의 능력을 실현시킴으로써 우리가 얻는 것, 즉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삶의 기술(예술)이다.

삶의 기술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말한다.



- 타인을 애정으로 대하고 남들이 나와 다르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고 존중할 줄 아는 능력.(사랑의 능력)
- 타인에게 의지하고 있을 때에도 자립적 태도를 유지하며, 비록 타인을 실망시키게 되더라도 자율성에 대한 권리를 끝까지 관철시키는 능력.(자율의 능력)
- 자기 성격의 부정적인 측면까지도 똑바로 인식하는 능력.(자아 인식 능력)
- 자기 자신의 상반된 요소들, 즉 자신을 유능하고도 실수를 범하기 쉬운, 창조적이지만 덧없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상반된 동일성 체험—자아의식, 자기확신, 자기에, 책임감,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아는 능력)
- 현실을 자신의 소망이나 두려움에 따라 임의로 왜곡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능력.(현실감각, 합리적 능력)
- 현실의 만족과 불만족, 즐거움과 괴로움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상반된 현실체험—균전한 자아, 참을성, 위기극복 능력, 유쾌한 생활태도)

이 책에 실린 글들

프롬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의 생애와 작품을 회고하며 씌어진 이 책의 글들은 하나의 독특한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 글들은 모두 프롬의 인식이 현대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프롬의 생각은 새 천년의 문턱을 넘어선 현대인들에게 얼마만큼 타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그가 보여준 학문



적 인식, 인간에 대한 이해, 사회과정에 대한 해석, 문화발전에 대한 분석 중에서 어떤 것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이 책에 실린 글들은 프롬의 사유가 가지고 있는 현대성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이 책의 편집인 세 사람은 먼저 프롬 정신분석의 단초와 사회심리학이 갖고 있는 현대적 의미를 문제삼았다. 라이너 풍크Rainer Funk는 프롬이 정신분석적 방법을 가지고 사회현상에 접근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며, 현대의 지배적 현상인 마케팅 지향성을 통해 프롬의 현대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게르트 마이어Gerd Meyer는 통일 이후 동서독 지역 교사들에 의해 진행된 사회적 성격Social character에 대한 프롬류의 사회심리학적 연구(성격장벽)를 예로 들면서 프롬의 중요성과 업적 및 문제점을 기술했다. 헬무트 요하흐Helmut Johach는 유대계 독일인인 프롬의 삶에서 출발하여 그의 인도주의적 태도와 실천을 고찰하고, 그것을 현대의 정치적 상황에 접목시키고자 시도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교육학과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프롬의 현대성을 다룬다. 부르크하르트 비어호프Burkhard Bierhoff는 사회화 조건들의 변화가 현대 청소년 세대의 사회적 성격에 미친 영향을 조사했다. 헬무트 베어Helmut Wehr는 프롬의 생명애호적 사상이 학교에 광범위하게 도입된다면 학생과 교사의 역할이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루드비히 폰그라츠Ludwig Pongratz는 마케팅 지향성이 교육과 재교육에 대한 이해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고, 위르겐 칼허Jürgen Kalcher는 프롬의 시각을 빌려 수량화數量化된 사회심리학의 문제와 그것이 사회복지사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비판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세 편의 글은 휴머니즘적 종교에 대한 프롬 사



유의 타당성을 다루고 있다. 볼커 프레더킹 Volker Frederking은 소유와 존재에 대한 프롬적 양자택일 사상에 담긴 사회 비판적 요소가 이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³⁾에 의해 급진적인 형태로 전개되었음을 보여준다. 위르겐 하르데크 Jürgen Hardeck는 권위적 종교와 인도적 종교의 구분을 통해 독선적이지 않고 ‘영혼 돌보기’에 더 힘쓰는 프롬의 종교관을 보여주었고, 얀 디트리히 Jan Dietrich는 프롬의 사회심리학적 관점을 빌려 종교의 역사적 변천과 사회적 성격과의 상관 관계를 다루었다.

마지막의 세 글은 프롬의 사유가 갖고 있는 사회·정치적 중요성과 그 타당성의 예를 보여준다. 카르스텐 슈미트 Carsten Schmidt는 마르틴 발저⁴⁾가 1998년 10월 11일 영국의 세인트 폴 대성당에서 행한 연설을 예로 들면서, 과거 나치를 대할 때 생겨나는 두려움, 개인적 또는 집단적 억압, ‘사회적 무의식’(프롬) 등의 요소를 고찰했다. K. 페터 프리체 Peter Fritzsche는 프롬의 저서 《자유로부터의 도피》에 의거해서 현대화 및 현대적 시스템 전환이 새로운 자유를 가능케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현상을 규명했다. 라이너 오테 Rainer Otte는 인류의 물리적 생존 가능성은 ‘인간 정신의 극단적 변화’에 달려 있다는 프롬의 언급에 입각하여 세계화 문제를 다루면서, 세계경제 윤리의 원칙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했다.

이 책의 필자들은 모두 프롬이 삶의 기술에 대한 글을 통해 인도주의적 윤리를 가능케 하는 모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 모델에서

3) Meister Eckhart : 1260?~1327. 중세 독일의 신비주의 사상가.

4) Martin Walser : 1927~. 노벨 문학상 후보에도 오른 독일의 소설가 겸 극작가.



프롬은 사회·경제·정치·문화를 인도주의적으로 조직하고 구성케 해주는 지도적 가치들을 보여준다. 물론 프롬이 제시하는 해답은 대부분 마케팅과 죽음애호증적 확산을 지향하는 현대 사회와 경제의 대세를 거스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프롬에 대한 평가도 상반되게 나타난다. 한편에서는 그를 푸른 눈의 몽상가로 여기거나, 또는 그의 사회비판을 염세주의의 소산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의 인식과 글에 인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담겨 있으며, 그로 인해 프롬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고유한 삶의 기술을 찾아가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렇게 볼 때 프롬의 현대성은 그가 제시한 삶의 기술의 타당성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라이너 폰크, 게르트 마이어, 헬무트 요하흐